

# 사랑의열매

1  
2018



특집

희망2018나눔캠페인  
기적은 계속됩니다

이달의 기부자

노래로 이웃과 함께  
라운제나 합창단

화제

목소리도 부드럽게  
윤아의 재능기부



Cover

'희망2018나눔캠페인' 제막식 때 아름다운 하모니와 함께 대회 상금까지 기부했던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의 라온제나 합창단.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받았던 따뜻한 마음을, 아젠 노래로 되돌려주며 더 큰 나눔을 들려주고 있다.



19



34



26



32

사랑의열매

vol. 129 2018 / 1

발행인 허동수  
 발행일 2018년 1월 / 통권 129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9 사랑의열매 회관 5층  
 만든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외홍보본부  
 구독안내 tel 02-6262-3000  
 fax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편집디자인  
 조선뉴스프레스 tel 02-724-6783  
 인쇄 (주)타라TPS tel 031-939-2049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하며,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6  
 특집 | 희망2018나눔캠페인  
 - 새해에도 이어지는 온정  
 - 사랑의우체통에서 500만 원 든 봉투 발견  
 - 팬들에게 받은 사랑, 나눔으로 갚는 스타 선수들  
 - SK 120억, 롯데 70억 등 기업 기부 이어져  
 - 4부 요인 캠페인 참여... 고사리손들도 저금통 기부

12  
 이달의 기부자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라온제나'

15  
 나의 나눔 이야기  
 음악이 세상을 웃게 하다

16  
 현장  
 아너 소사이어티 창립 10주년... 2,000 회원 눈앞

18  
 포커스  
 나눔공모전에 개인 1,379명, 단체 45개교 수상

19  
 포토뉴스  
 연탄 한 장으로 퍼지는 인정

20  
 화제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아너 가입  
 - 아너 윤아, 사랑의열매 광고 재능기부

22  
 기획 | 나눔리더스클럽 200일  
 - 친구나 동료, 가족과 함께... 뭉치니까 커집니다  
 - SK이노베이션 1004단 등 세 곳, 1호 가입  
 - 1,123개 회원사 보유한 비전기업협회도 동참  
 - 등산·골프 등 스포츠 즐기고 나눔도 하고

26  
 착한기업 | KB국민은행  
 청소년 'KB스타비(飛) 꿈티움 프로젝트'

32  
 착한일터 ㉔ 인천도시공사  
 연탄 배달·힐링 콘서트... 찾아가는 이웃 사랑

34  
 여행 플러스 | 강원 동해 묵호  
 동해 일출 보고 '이명애 라면' 먹을까?

38  
 희망스토리  
 정신장애인의 자립 프로젝트, 해피하우스다솜

40  
 나의 열매 이야기  
 이주희 인천 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 대리

42  
 같이가치  
 여러분의 정성으로 사랑이 쌓입니다

44  
 모금회 뉴스  
 - 2018 '나눔과꿈' 지원 기관 5곳 선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7개 지회 뉴스

54  
 이달의 아너 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결심, 고맙습니다!

56  
 테마푸드  
 뜨끈한 국물 음식으로 겨울철 체온 Up!

57  
 건강노트  
 동장군 한파 땀 혈압 특히 조심

58  
 독자 페이지



# 세상에서 가장 큰 열매가 희망을 밝힙니다

사랑의열매는 개인기부 33만 명, 착한가게 20,000곳,  
아너 소사이어티 1,600회원과 기업 25,684개의 참여로  
매년 더욱 풍성하게 열립니다.

빈곤 지원 **3,749**억

기초생계 2,580억  
교육·지립 846억  
주거·환경 323억

질병 지원 **797**억

보건·의료 622억  
심리·정서 175억

소외 지원 **907**억

사회적돌봄 388억  
소통·참여 328억  
문화격차해소 191억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는 기부

# 지금, 돌아보주세요

생각보다 가까이, 돌아보면 더 많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임윤아 아너 소사이어티 713호 회원

201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 **5,453억 원**(86만 건)은 국내 10대 자선단체와  
모금기관의 **국내 공익사업비** 지출 1조 600억 원의 절반이 넘습니다 <출처\_한국기이드스타>

- 1억원 이상 개인기부 아너 소사이어티
- 수익금 일정액 정기기부 착한가게
- 급여일부 정기기부 착한일터
- 매월 가족이름으로 정기기부 착한가정

기부상담 080-890-1212  
ARS기부 060-700-1212

·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997년 제정)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정 모금 전문 기관입니다.  
·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가장 투명한 기부금 관리,  
공정한 지원절차로 대한민국의 민간 복지를 이끌고 있습니다.

기부상담 080-890-1212 | ARS 기부 060-700-1212

##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라온제나' 받았던 따뜻함 노래로 갚아요

경기도 오산의 라온제나 합창단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누군가의 지원을 받아 꿈을 키우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온 합창단 아이들이 이젠 아름다운 하모니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하고자 한다.

글 김기린 / 사진 이광재

“선생님 저희 잘했죠? 무대에 올라가면 하나도 안 떨려요.” 지난 11월 희망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 광장이 또 한 번 들썩였다. 연말연시 이웃을 돕는 공동모금회의 희망2018나눔캠페인이 시작된 것이다. 사랑의온도탑 제막식이 있던 그날은 캠페인 성공을 기원하며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그 가운데서도 많은 이에게 감동을 전하며 언 마음을 단번에 무장해제 시킨 무대가 있었다. 경기도 오산시립아동센터의 라온제나 합창단의 공연이었다. 아이들의 청아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광장엔 금세 온기가 도는 듯했다. 뿐만 아니라 제막식 공연을 기회로 아이들은 합창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 연 30회 재능기부 공연에 상금도 기부

2016년 결성된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의 라온제나 합창단은 매주 월요일 2시간씩 연간 총 17~20회 정도 수업을 한다. 수업과는 별개로 지역 행사나 요양원 등에서 무료 공연을 하기도 한다. 2017년엔 무려 30회 이상 무대에 섰다. 아이들 역시 자신들이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나눔과 함께 쌓인 다수의 무대 경력은 곧 실력이 되어 돌아왔다. 2017 희망소리 합창 페스티벌에서 라온제나는 경쟁 후보들을 꺾고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대회를 마치고 상금으로 받은 70만 원을 어떻게 쓸지 논의하고자 아동자치회가 열렸다. 회의 중 기부를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어떤 단체에 하면 좋을지 저마다 의견을 내놓았다.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가르침에 보답하고자 일부는 센터 운영비로 전달하고, 나머지는 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합창단 활동이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는 열 살 희서는 “친구들이랑 센터에서 간식 먹고 노래 부르는 게 제일 재밌어요. 하지만 먹고 싶은 걸 못 먹거나 겨울에 추운 방에서 지내야 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 친구들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받은 상금을 나눠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라며 적극 찬성했다.

화가가 꿈인 연호 역시 자신처럼 그림 그리길 좋아하는 친구들이 물감이나 크레파스를 맘껏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한다. 지원을 받던 아이들이 기부자가 되어 나눔을 실천한 것이다. 재능기부부터 상금기부까지, 서로를 배려하며 다독이던 아이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먼저 나서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노래를 통해 ‘행복한 나’ 찾기”**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모여 놀며 공부하는 곳이다. 정부지원금과 뜻깊은 후원금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교육비나 체험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경기 공동모금회로부터 급식비를 지원받아 운영해 왔다. 라온제나 합창단은 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5학년까지 29명으로 구성돼 있다. 센터에서는 2014년부터 앙상블이나 오카리나 공연팀을 구성하여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하고 재능기부를 실천해 왔다. 그러다가 조순희 센터장은 악기를 익히고



무대에 오르며 자존감을 되찾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아이와 함께하기 위해 합창단을 결성했다.

“요즘은 학교에서도 1인 1악기 등의 음악 교육을 실시하는 추세죠. 하지만 시립아동센터를 찾는 아이들의 경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그런 사교육을 받기 어려워요. 특히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한국어에 서툰 부모나 맞벌이 부부가 많아 가정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소외감이나 불안감 등으로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합창단을 통해 아이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생각에 안정감을 찾고 있어요.”

오산시는 다른 경기 지역보다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라온제나 합창단도 90% 이상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다. 가정형편이 어렵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때때로 아이들은 차별을 받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행복한 나’라는 뜻의 순 우리말 ‘라온제나’. 센터 내 선생님들은 합창단의 이름처럼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행복해하고, 당당하게 자신만의 꿈을 찾는 아이들로 성장하길 바란다. ♣



“친구들이랑 센터에서 간식 먹고 노래 부르는 게 제일 재밌어요. 하지만 먹고 싶은 걸 못 먹거나 겨울에 추운 방에서 지내야 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 친구들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받은 상금을 나눠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 재능기부에서 나눔콘서트까지 음악이 세상을 웃게 하다

글 추경승(세종시직장인밴드 카페지기)

아주 오래전부터 꿈이 있었다. 남을 돕고 싶다는 것.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음악이었다. 전문적으로 음악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20년간 밴드 활동을 해왔고,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음악이었다. ‘음악으로 나눔을 해보자’ 그렇게 나눔이 시작됐다. 2015년 세종시에 자리를 잡고 밴드 동호회를 찾아봤지만 전혀 없었다. 그래서 직접 동호회 카페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2년이 지난 지금 ‘세종시직장인밴드’ 회원 수는 550여 명으로, 7개 팀이 밴드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특별한 가입 기준은 없지만, 밴드 활동에 열의가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직장인이 대부분이다. 일반 직장인부터 교수, 의사, 공무원 등 직업군도 다양하고 3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하다. 나는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음악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싶었다. 우선적으로 동호회 내에서는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습은 재능기부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저소득가정의 아이들에게 악기도 가르쳐주고 있다.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해 오다가 시작한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 초·중·고등학생 20여 명에게 음악을 알려주고 있다. 음악에 재능은 있는데 경제적 상황 때문에 배울 수 없는 아이에게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해주고, 함께 연주를 하면서 아이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행복해한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회원들과 나는 더 큰 나눔을 꿈꿨다.

바로 ‘나눔 콘서트’. 우리는 2016년 5월 세종호수공원 첫 공연을 시작으로 분기별 정기공연을 포함해 세종시 마을 축제, 초청 공연 등 총 9회 공연을 펼쳤다. 우리만 즐거운 음악이 아닌, 음악을 통해 세종시 사람들이 다 함께 소통할 수 있길 원했다. 다행스럽게도 사람들의 반응은 좋았다.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과 즐거움을 줄 수 있어 기뻐다. 이런 나눔의 기쁨을 관객들과도 함께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난해 7월과 12월 성금 모금을 위한 자선콘서트를 열었다. 물론 금액은 크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음악으로 이 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진 않는다. 그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힘을 얻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생기길 바랄 뿐이다. 또한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보고, 우리보다 더 큰 사람들이 움직여 더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아너 소사이어티 창립 10주년

# 감동의 10년 희망의 100년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인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1월 3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전국의 아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동의 10년, 희망의 100년' 행사를 펼쳤다.

글 김정아 / 사진 한준호

### 회원 2,000명, 누적 기부액 2,000억 눈앞

박은 갑작스러운 한파로 찬바람이 뽀뽀 불었지만, 행사장 안은 시작 전부터 나눔의 온기로 가득 찼다. 행사 한 시간 전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아너 회원 및 가족 350여 명이 참석해 북적였다. 처음 만난 회원들도 있었지만, 사랑의열매 아너이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 큰 공통점이 있기에 낯선 분위기도 잠시뿐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대화를 즐겼다. 오전 11시, 아너 회원인 배우 정보석씨와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진제향씨의 사회로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됐다. 영상을 통해 지난 10년간 아너 소사이어티 모금·배분 성과와 활동보고를 전해들으며, 아너 회원들은 서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어 아너 소사이어티 활성화에 기여한 회원에게 특별공로상과 나눔공로상이 수여됐다.

특별공로상은 2008년 5월 아너 첫 회원이 된 남한봉 유니크코리아(주) 회장, 여성 기업인 1호 회원으로 여성 회원 증가에 기여한 송경애 BT&I 대표이사, 최초 부부 아너인 이덕우 (주)덕양 명예회장·장선우 부부, 광주 지역 내 아너 회원 40명 가입을 이끈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등 총 10명에게 수여됐다. 또한 나눔공로상은 최신희 아너 소사이어티 총대표(SK네트웍스 회장)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지회에서 지역 아너 소사이어티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는 지회 회원대표에게 수여됐다. 특히 최신희 회장은 지금까지 총 39억 원의 기부금을 내 개인 기부자 중 가장 많다.

### 빨간 스카프·램프 퍼포먼스로 10년 지축

시상식이 끝난 뒤, 회원들은 아너 소사이어티 로고가 그려진 빨간 스카프를 목에 걸었다. 사랑의열매를 상징하는 빨간색이 행사장 전체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각자 테이블에 있는 희망의 램프에 서명을 하고, 참석자 전원이 무대 위로 올라갔다. 무대를 가득 메운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은 나눔을 상징하는 하트 모양의 램프를 환하게 비추며 그동안 나눈 온정을 지축했다. 한편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는 2007년 12월 발족해 회원 6명, 모금액 15억 원으로 시작, 12월 7일 기준으로 회원 수 1,676명, 누적 기부액 1,841억 원으로 성장했다. 가족이 함께 가입하는 사례도 늘어 현재 총 160가족 350명이 가족 아너로 등록돼 있다. ❀



#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에 1만 4,926건 응모 개인 1,379명, 단체 45개교 수상

12월 28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제5회 전국 초·중·고학생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과 나눔지도교사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만 4,926건이 접수돼 이 중 개인상 1,379명 단체 45개 학교가 수상했으며, 학교 생활 속에서 나눔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온 교사에게 주어지는 나눔지도교사상에는 9명의 교사가 수상했다.

개인상 대상(교육부장관상)은 송민성(경북 영주동부초 2학년), 이지민(충북 용원초 6학년), 권주현(대구 소선여중 3학년), 조해인(광주 전남여상 1학년) 학생이 받았고, 단체상 대상은 경기 부천대명초와 경기 안일중에 돌아갔다.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공동모금회와 교육부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나눔은 실천이다'란 주제로 특별 제작한 영상물을 보고, 시·수필·일기·편지 등 자유로운 형식의 글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동모금회는 나눔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이 나눔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일상 속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

초등학교 저학년 부문 대상 **송민성**(경북 영주동부초2)  
**할머니처럼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베품이가 될 것**

저녁을 먹고 나서 아빠가 유튜브에서 <나눔특공대>라는 동영상을 보여 주셨다. 10분 정도의 동영상인데 초등학교 생·누나들이 '나눔특공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나눔을 실천하는 내용이었다. 동영상에는 나눔특공대가 학교 안전보안관 할아버지가 일하는 곳의 에어컨을 고쳐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정말 멋있어 보이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나눔특공대가 되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멋진 나눔을 실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는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무리한 도움은 직접 하지 말고 경찰아 저씨나 다른 분들에게 맡기고, 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도움들을 먼저 실천해야겠다는 것이다.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는 것도 나눔이 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을 알았다. 동영상을 다 보고 나는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나눔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나눔을 생각해 보니 나보다 할머니가 먼저 생각이 났다. 할머니는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는데 할머니는 무엇 이든지 다른 사람과 나누신다. 부침개를 하면 나보고 아랫집, 옆집에 사는 아줌마들에게 갖다드리라고 하고, 과일이 생겨도 조금씩 나누어 드신다.

<중략>

저번에 아빠가 그랬는데 옛날에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명이 '베품이'라고 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베품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오늘 동영상을 보고 나니 내 태명이 나눔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베품이라는 이름이 더 마음에 들었다.

나는 앞으로도 할머니처럼 작은 나눔을 실천할 것이다. 큰 것은 아니지만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할머니처럼 되고 싶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지내고 싶다. 아직은 내가 어려서 작은 나눔이지만 나중에 자라서 어른이 되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처럼 돈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직접 봉사활동도 실천하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 사랑의열매 기부자들의 연탄배달 봉사 연탄 한 장으로 퍼지는 인정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꼭 필요한 연탄 지원이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관심을 갖고 많은 분이 나눔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9일 오전 10시 인천 도원역 부근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황기순씨와 기부자 등 50여 명이 모였다. 이번 연탄봉사는 지난 8월 '황기순·박상민의 사랑더하기' 모금행사의 기금으로 연탄 7,000장을 기부하면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사랑의열매 기부자를 비롯해 평소 나눔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기부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봉사자들은 2시간 넘게 좁은 골목길과 높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어른신과 아이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즐겁게 배달을 했다. 봉사자들 역시 '처음 연탄배달을 해봐서 어렵기도 했지만, 함께해서 힘이 났다.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사진 최항석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아너 가입

# “집 살 때 빼고 큰 돈 썼지만 좋네요”

글 김정아 / 사진 공동모금회

“유엔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한국에 돌아가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져왔다. 기부금은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좀 더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에 쓰였으면 한다.”

지난 12월 7일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사랑의열매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 김봉현 전 호주대사와 함께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을 방문한 반 전 총장은 허동수 공동모금회장에게 1억 원을 전달하고 1,676번째 회원이

됐다. 전달식에서 허동수 회장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인류의 평화와 공존에 크게 기여해 온 반기문 전 총장의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기문 전 총장은 2006년 한국인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됐으며, 2011년 재선되어 2016년까지 10년간 재임했다. 현재 IOC 윤리위원장, 글로벌 콤팩트 명예회장 및 연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원 명예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



아너 윤아, 사랑의열매 광고 재능기부

# “지금, 돌아봐 주세요”

글 김정아 / 사진 공동모금회



걸그룹 최초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한 소녀시대 윤아씨가 사랑의열매 연중·연말광고 캠페인에 참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1월부터 공개된 연중광고는 공동모금회의 주요 배분 사업인 희망플랜을 주제로 제작됐다. 청년실업, 빈곤 등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자 지원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부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이 광고에서 윤아씨는 차분하고 맑은 목소리로 내레이션을 맡아 주목도와 친밀감을 높였다.

또 윤아씨는 목소리 재능기부에서 멈추지 않고 연말광고에 직접 출연하며 참여했다. 12월부터 공개된 이 광고는 ‘지금, 돌아봐 주세요’라는 메인 카피를 통해 간결하지만 강렬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광고 담당자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소녀가 피규어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광고적 장치를 이해하고 광고를 보면 그 의미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광고는 윤아씨의 출연으로 그녀를 좋아하는 젊은 팬들과 해외 팬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으며 사랑의열매를 알리는 데 효과를 보고 있다. 해마다 사랑의열매는 연말연시 집중모금 캠페인 기간에 맞춰 광고를 제작하고 있다. 그동안 박인비·이봉주·김보성·임형주·최현우씨 등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대중의 나눔 참여를 이끌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돼 주고 있다. ♡



친구나 동료, 가족과 함께  
**뭉치니까 커집니다**

훈밥, 훈영, 훈행... 어떤 일이든 혼자서 처음 하는 것은 어렵다. 기부나 봉사도 마찬가지. 좋은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선뜻 혼자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나눔리더스클럽'으로 뭉쳤다. 함께하면 나눔도 쉽다는 것을 알기에.  
글 김정아 / 사진 공동모금회, 조선DB

사회적으로 나눔문화가 확산되면서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연말이나 연초에 기부나 봉사 등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곳들이 많다. 이들의 나눔은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인 나눔이라는 점에서 더 긍정적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2017년 6월, 사랑의열매는 모임이나 단체의 기부 참여를 위해 '나눔리더스클럽'을 발족했다. 향우회·동문회·동호회·동아리·팬클럽 등 모임과 단체만이 가입할 수 있고, 3년간 1,000만 원 이상을 기부 또는 약정하면 된다.

**SK이노베이션 1004단 등 세 곳, 1호 가입**

지난 6월 20일, 나눔리더스클럽 발족에 맞춰 3개 단체가 공동으로 1호에 가입했다. 주인공은 SK이노베이션 1004단(기업 봉사단 1호),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사회공익 단체 1호), 최나연 프로의 아름다운 골프마을(스포츠 팬클럽 모임 1호)이다. SK이노베이션 1004단은 2004년 7월에 출범,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직원 모두가 소속에 따라 SK1004단 내 봉사팀에 배정돼 서울, 울산, 인천 등 전국 각지에 총 67개 봉사팀이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SK는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을 인식, 신입사원 연수 프로그램에서부터 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있다. 2013년부터 공동모금회와 함께 사회적 기업 발굴·지원



프로골퍼 최나연 선수와 팬클럽은 겨울마다 기부와 봉사활동을 하며 나눔을 실천한다.



나눔리더스클럽 1호인 SK이노베이션은 신입사원들에게 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있다.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전 사업장 구성원을 대상으로 '1인 1후원계좌' 기부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임직원의 40% 정도인 2,400명이 동참하고 있고, 액수는 3억 7,000만 원을 달성했다. 프로골퍼 최나연 선수의 팬클럽 '아름다운 골프마을'은 나눔을 활발히 하는 모임으로 유명하다. 최 선수는 2005년부터 자선행사를 비롯해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기부, 어린이 환자들을 위한 수술비 지원 등 따뜻한 온정을 펼쳐오고 있다. 이에 최 선수를 응원하는 팬클럽 회원들도 나눔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연말이면 함께 김장 담그기, 겨울용품 전달 등 봉사활동은 물론 최 선수가 버디를 기록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적립, 모은 돈을 기부하기도 한다.

**1,123개 회원사 보유한 비전기업협회도 동참**

인천 나눔리더스클럽 1호는 인천비전기업협회다. 지난 7월 가입한 비전기업협회는 2011년 독자적인 기술제품을 보유한 지역 비전기업 505곳을 선정해 2012년 8월 창립된 단체로, 현재 1,123개 제조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비전기업협회는 회원사들이 기부 및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인천 공동모금회는 기업별 니즈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3,000가정 사랑연약사업'을 위한 성금 2,488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성금은 회원사 16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전달된 성금은 저소득층 68가구에 1년 동안 매달 3만 원씩 지원될 계획이다. 오현규 협회장은 "다양한 나눔활동을 통해 회원사들이 지역 취약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 앞으로 더 많은 회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6월 발족한 '나눔리더스클럽'은  
향우회·동문회·동호회·동아리·팬클럽 등  
모임과 단체만이 가입할 수 있고,  
3년간 1,000만 원 이상을 기부 또는  
약정하면 된다



(사)아산시기업인협의회도 지난 12월, 창립 30주년 행사 후원금 1,200만 원을 기부하며 충남 나눔리더스클럽에 여섯 번째로 가입했다. 회원들이 모은 성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2곳에 각 100만 원씩, 나머지 1,000만 원은 취약계층 아동 후원에 사용된다. 후원유 (사)아산시기업인협의회 회장은 “기업들의 마음을 모아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에 매우 보람을 느낀다. 나눔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나눔리더스클럽에 함께할 관내 기업 및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꾸준히 후원을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등산·골프 등 스포츠 즐기고 나눔도 하고**

지난 8월 백두대간 종주대회를 펼친 안동시산악연맹이 안동시의 나눔리더스클럽 1호로 이름을 올렸다. 안동시산악연맹은 ‘국토사랑2017백두대간 1일종주대회’를 통한 적립금 1,092만 5,000원을 기부해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에 기부한 성금은 회원들이 백두대간 740km를 종주하면서 1km를 걸을 때마다 안동시산악연맹에서 1만 원씩 적립해 마련한 것이다. 이동찬 안동시산악연맹 회장은 “우리 산악인들이 한마음으로 모은 성금을 지역사회에 되돌리고 안동 지역 첫 나눔리더스클럽 회원으로 선정돼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기부와 사회봉사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상북도의사회도 사회공헌활동 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를 진행했다. 회원 180여 명이 참석한 이 대회는 의료인의 봉사정신을 알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한 기금 마련과 회원 간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 진행됐다. 친선 골프대회와 함께 진행된 현장 모금으로 3,437만 원이 모금됐으며, 연간 자동이체 모금을 합쳐 총 3,750만 원이 적립됐다. 경북의사회는 대회가 끝나고 경북 공동모금회에 약정금 500만 원을 전달하며, 경북 나눔리더스클럽 제3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논산 5남매의 '효 실천' 나눔**

지난 9월 논산에 사는 다섯 남매가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십시일반 모은 1,000만 원을 충남 공동모금회에 전달하면서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했다. 첫째 류제웅씨, 둘째 류제순씨, 셋째 류제삼씨, 넷째 류제희씨, 다섯째 류제도씨 등 이들 남매는 최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뜻깊은 일을 하고자 결정하고 조금씩 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부금은 논산 가야곡면 중·고등학생 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장남 류제웅씨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기 위해 결정을 했다. 형제들과 함께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하게 돼 더욱 뿌듯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젠틀재인, 달력 수익금 기부하며 가입**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팬카페인 ‘젠틀재인’은 문 대통령 달력 판매 수익금 1억 원 기부를 약정하면서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했다. 앞서 젠틀재인은 8월 2일~9월 25일 진행한 1차 달력 판매 수익금을 공동모금회에 전달했고, 10월부터 진행된 ‘대통령의 지난 7년, 캘린더에 담다’ 캠페인에서 2차 달력 판매를 벌여 얻은 수익금도 전액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성금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치매어르신 병간호비와 장애아동 재활 치료비에 쓰인다. 젠틀재인은 2010년 7월 개설된 문 대통령의 온라인 팬클럽 카페로 현재 5만여 명이 가입돼 있다. 이 팬카페는 매년 직접 촬영한 문 대통령 사진을 활용해 달력을 제작하고 있다. 🌸



충남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한 가야곡면 오남매



문재인 대통령 달력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며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한 젠틀재인



KB 국민은행

청소년 'KB스타비(飛) 꿈틔움 프로젝트'

# “넌 할 수 있어”... 날개가 되어준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06년 사회공헌 원년 선언 이후 사회봉사단 확대·개편 등을 통해 방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중 특히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청소년', 저소득가정과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KB스타비(飛) 꿈틔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글 김정아, 박성연 / 사진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청소년을 위한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와 조화로운 은행을 만든다'는 사명을 기반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KB스타비(飛) 꿈틔움 사업이다. 이 사업은 소외계층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으로, 16개 사업으로 세분화해 M.A.P(Mentoring, Assisting, Planning)를 제공한다.

## 멘토링·체험캠프 등 16개 프로그램 마련

먼저 멘토링(Mentoring)을 통해 1:1 학습멘토링, 다문화멘토링, 영어캠프, 다문화미술학교 등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학습지원(Assisting) 분야에서는 장학금 지원, 공부방 조성,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학습공간 마련, 놀이치료 등을 제공한다. 또한 진로설계(Planning)를 돕기 위해 체험캠프, 다문화기술학교, 회계가이드 프로그램, 힐링&비전 캠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국 51개 영업점과 지역아동센터가 1대1로 결연을 해 분기마다 임직원 봉사활동도 함께하고 있다.

KB스타비(飛) 꿈틔움 프로젝트는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4,000여 개의 지역아동센터 7,000여 명의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50억 원 규모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학술, 글로벌, 사회공익 등 분야별로 진행되는 사회공헌활동도 많다. 2013년부터 진행된 토크형 진로콘서트 '꿈꾸는대로'는 청소년의 자기 주도형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작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수민 PD, 나영석 PD, 정샘물 원장, 방송인 김제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사들이 참여해 삶과 직업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 사랑의열매와 함께 장애인입생 학습보조기구 지원도

KB국민은행은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을 위해 직원들의 참여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돕는 '신속드림봉사단', 임직원의 재능을 기부하는 '재능드림봉사단', 핵심 테마별 1,200여 개의 소규모 봉사단을 아우르는 'KB스타 드림봉사단' 등 다양한 봉사모임을 통해 직원 개개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공동모금회와도 새내기장애대학생 학습보조기구 지원, 저소득층 아동 악기 무료 레슨 프로그램,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 등 다양한 나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9년째 장애가정 청소년의 꿈을 지원하고 있는 두드림사업과 저소득가정의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 재난경험 청소년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장애가정 청소년 지원 '두드림(DoDream) 스타'**

부모가 장애가 있는 비장애학생들도 대상 장학금 지원부터 맞춤형 진로 관리까지

10년 전 손지훈(가명·24) 군의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한 뒤, 그로 인해 정신적 장애 진단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가정환경의 변화로 지훈 군은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괴롭고 힘들 때마다 그를 버릴 수 있게 해준 것은 그림. 그렇게 매일 그림을 그리면서 지훈 군은 디자이너의 꿈을 갖게 됐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미술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했다. 매달 힘들게 생활하는 지훈 군네 형편으로는 불가능했다. 그렇게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지훈 군은 두드림스타 사업을 만났다.

그는 장학생으로 선정되면서 미술학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홍익대 산업디자인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자신이 지원받은 것에 감사함을 느껴 '매직스타'라는 청년모임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나눔활동에 매진, 자신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자신의 꿈을 위해 꾸준한 노력과 성장을 거듭해 온 지훈 군은 최근 일본의 유명 자동차 회사에 카디자이너로 입사하게 됐다. 하지만 지훈 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장애가정 청소년들의 희망이 되겠다는 더 큰 꿈을 향해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

KB국민은행과 공동모금회가 지원하고 (사)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담당하고 있는 '두드림스타' 사업은 9년 차에 접어들었다. 이 사업은 장애가정 청소년의 꿈 실현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들의 학업과 일상생활, 진로 등을 관리하고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창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긍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전국 공동수행기관(시설, 복지관, 센터, 지역협회 등 약 90곳)의 사례 관리자들과 협력해 맞춤형 사례 관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강점”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 사업은 지훈 군처럼 지원 대상자가 장애인이 아닌, 부모가 장애가 있는 비장애 청소년까지 해당된다는 것이 눈에 띈다. 실제로 장애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은 많지만, 부모가 장애가 있는 비장애 청소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가정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만들며, 이는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 이에 두드림스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가정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목표 달성을 통해 홀로서기에 성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한다.

**빈곤 대물림 예방... 9년간 200여 명 혜택**

장애가정 청소년들이 두드림스타를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더라도 빈곤과 결핍의 문제는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다른 친구들보다 경제적 부담이 큰 지원 대상자들은 대학에 들어가서도 등록금, 교재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하루종일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리한 아르바이트로 학업 성적, 문화적 역량, 또래 관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두드림스타는 2016년부터 '꿈투자통장'이라는 사업을 시작했다.

기업과 매칭적립을 통해 1년 후 약 240만 원의 장학금을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이 복지사는 “꿈투자통장은 최소한의 안정책이다.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청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장애가정 청소년들이 성장해 청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서도 꿈을 이루어가며 홀로 설 수 있으려면 청년기에도 지속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장애가정 청소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는 청년기까지 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 두드림스타는 지원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아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장청년은 약 200명이 넘는다. 이들을 위한 모임 '매직스타'를 통해 다양한 청년활동을 전개하고, 간담회를 통해 장애가정 청소년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나눔의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드림스타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와 장애가정의 빈곤 대물림을 예방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다.

**저소득가정의 긴급 생계비 지원**

KBS1 <동행>에 소개된 사연 대상자 후원  
2년 동안 후원금 전달, 경제적 자립 도와

전남 함평의 한 컨테이너에는 사남매가 살고 있다. 벌써 4년째다. 5년 전 아빠가 갑작스런 사업 실패로 목숨을 끊고, 연이어 엄마 또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일 년 사이 딸과 사위를 동시에 잃은 충격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된 할아버지와 아이 잘 보이지 않는 할머니는 사남매를 키울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사남매를 그룹홈에 맡기고 할머니는 한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다. 하지만 6개월 후, 아이들은 다시 할아버지와 할머니 품에 안겼다. 당시 12세였던 큰손녀 윤선이가 어린 동생들을 자신이 다 책임지고 돌볼 테니 함께 살게 해달라고 간청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족들은 다시 모였다. 비록 지붕에서는 비가 새고, 겨울에는 찬바람이 승승 들어오는 농기구 창고에서 생활하지만 함께하기에 웃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방송된 KBS1 <동행-오늘도 엄마>에 소개된 사연이다. 이 프로그램은 질병이나 파산·실직 등으로 가난의 굴레에 갇혀 있지만, 자활 의지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방송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사연을 접한 이들은 관심과 응원을 통해 그들에게 힘을 주고 있다. 2016년부터 KB국민은행도 이들과 동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해 2년간 후원금을 전달해 저소득가정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사업은 ‘국민에게 진심을 다하는 사회공헌’을 목표로 체계적인 나눔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의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2017년 8월부터 2차년도 사업이 시작됐고, 1년간 36가정에 긴급 생계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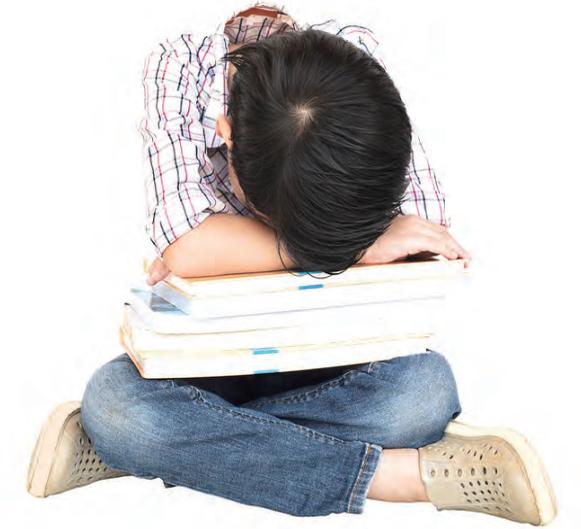


KB국민은행은 KBS1 <동행> 사례 대상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동행>은 매주 토요일 낮 12시 10분에 방송된다.

**재난경험 청소년 사회적응**

포항 지진 등 각종 재해로 공포감 계속  
1:1 튜터링 프로그램으로 정서적 안정

지난해 말 포항 지진으로 또 한 번 국민이 지진 트라우마를 겪었다. 전국 각지에서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물품과 성금 지원이 이어지면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진 경험 후 불면과 식욕저하, 두통, 대인관계 기피 등 심리적 불안감과 공포는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신적 외상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은 현재의 스트레스 반응이 급성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악화될 수 있어 더욱더 관심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지난 10년간 발생한 재난 빈도는 60% 이상 증가했고, 재난 피해자 역시 17%가 증가했다. 지금까지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지만, 현대사회에서의 재난은 주기가 단축됐고 피해의 규모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사고 및 질병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의 단절을 경험한 청소년도 증가해 이들의 사회 부적응은 곧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구세군자선냄비본부는 공동모금회와 KB국민은행의 지원을 받아 2017년 9월부터 ‘재난경험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총 5가구로, 재난 또는 사고, 질병 등의 트라우마로 학업 및 사회생활의 단절을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1:1 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및 진로, 상담 등을 지원해 사회에 적응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효진 팀장은 “지원 대상자 선정과 1:1 맞춤 튜터(tutor, 개인지도교사)를 모집하고 선발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투자된다. 대상자마다 각각 다른 강도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그에 맞는 맞춤 튜터를 모집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렵다”고 말한다.

중간 만족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원 대상자들은 튜터들에게 선생님 이상의 의미를 두고 학습뿐 아니라 개인적인 일을 상담하는 등 상당히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와 함께 심리적·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찾으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앞으로 사업 담당기관은 지원 대상자들에게 단계별 프로그램을 진행해 개개인의 안정은 물론 봉사활동 참여 등 사회 복귀를 기대한다. ♣





## 연탄 배달·힐링 콘서트 찾아가는 이웃 사랑

도시 재생과 주거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인천도시공사. 그들의 사업이 시민들에게 적극 지지를 받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 기부로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복지사각지대를 직접 찾아가는 직원들의 진심 어린 노력을 느끼기 때문이다. 글 김가민 / 사진 이광재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는 구절을 되새기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한 행사입니다. 연탄만이 아니라 뜨겁게 피어오를 사랑의 마음까지 함께 나누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된 12월의 첫날. 인천도시공사 직원들 만난 곳은 인천 동구 송림 6동의 어느 골목길이었다. 노란 조끼에 빨간 사랑의열매 배지를 단 직원들이 두툼한 장갑을

끼고 트럭 앞에 모여 섰다. 수북이 쌓인 검은 연탄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는 표정이 비장해 보이기까지 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DAY’ 1탄으로 20명가량의 직원과 시민이 모여 연탄 기부 및 배달 봉사를 실시하는 날이다. 홀몸 어르신 등 저소득가구 약 30가구를 직접 방문해 총 8,8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본격적인 연탄 배달에 앞서 황효진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안도현의 시 ‘너에게 묻는다’를 읊으며 나눔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겼다.

### 인천도시공사

2003년 5월 인천시의 도시개발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인천시 산하 공기업으로 설립되었다. 공동주택 공급, 대규모 단지·택지개발,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임대사업 등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 인구 300만 시대를 맞아 명실상부한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2007년부터 직원 기부... 전 직원 봉사활동 의무화

인천도시공사가 착한일터에 가입한 건 2017년 4월. 하지만 직원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회사가 지원하는 매칭기프트 형식의 모금 운동은 2007년부터 시작됐다. 초기 80여 명의 직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170여 명, 전 직원의 60%가량이 참여하여 월 평균 200여만 원의 기금이 모인다. 인천도시공사 고객만족팀 이성호 팀장은 큰돈은 아니지만 이 모금액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를 밝히는 데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성실하게 기부하는 일부 직원만이 아니라 다수의 직원이 동참하길 바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기부금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기부금은 현금 후원뿐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에 나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활용한다. 나눔이 계속되기 위해선 왜 필요한지 스스로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는 전 직원이 일 년에 4시간 이상 봉사활동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지역 내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찾아가 생일 케이크를 전달하고 축하 노래를 불러드린 적이 있어요. 처음 뵈는 자리라 어색할 줄 알았는데 찾아와 준 것에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누군가에겐 일 년에 한 번씩 하는 당연한 이벤트일지라도 그분들에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된다는 사실에 놀랐

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만 생각했기에 무심했던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었죠.”

### 직원들이 나눔 프로그램 설계 단계부터 참여

처음엔 점수를 채워야 한다는 의무감에 나섰더라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나면 마음이 달라진다. 대한민국 대표 모금기관의 기부자가 된 것에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천도시공사의 사회공헌활동은 직원들의 나눔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지난해엔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나눔활동을 하고 싶은지 설문조사를 했다. 사회공헌 부서 및 담당자가 수혜자를 선정하는 일방적인 방식에서 탈피해 직원들이 직접 프로그램 설계 단계부터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각 부서의 특징과 업무별 복지사각지대를 제안받을 수 있어 새로운 수혜처 발굴에 도움이 되었다. 여기에 전국적인 배분 시스템을 갖춘 공동모금회의 협업 역시 질 높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인천도시공사에서는 도시 재생 및 주거 복지 분야와 연계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함께하는 도시, 따뜻한 도시’라는 슬로건답게 시민들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인천도시공사. 직원과 시민들이 소통하며 진정한 글로벌 복지 친화 기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

###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의 기부금,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현재 170여 명의 직원들이 동참하여 매달 평균 약 200만 원이 모이고 있습니다. 누적 지원액은 약 2억 4,000만 원으로 관내 사회복지기관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사업,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 개선 및 IDTC 장학생 지원 사업을 추진해 인천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 동해 일출 보고 '이영애 라면' 먹을까?

묵호의 논골담길을 오롯이 만나려면 부지런해야 한다. 수평선에 붉은 선을 그으며 떠오르는 일출을 봐야 하고, 낮에는 골목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엿들으며 놀고, 오후엔 다시 바닷속으로 몸을 담그는 해의 뒷모습을 배웅하며 한 해를 시작해 보자.  
글·사진 조혜원(여행 작가)



동해 묵호는 혼자 떠나기 좋은 여행지다. 서울에서 버스로 3시간 거 리인 데다가 버스터미널에서 주요 여행 명소를 걸어서 둘러볼 수 있다. 묵호등대, 출렁다리, 영화 <봄날은 간다>의 배경인 삼분아파트와 길, 묵호의 풍경이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바람의 언덕. 모두 논골담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씩 만날 수 있다. 묵호의 화려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이들과 묵호의 매력에 이끌려 모여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도시의 어느 핫한 골목보다 흥미롭다.

## 논골담길 걸으며 만나는 묵호의 맨살

“마누라나 남편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묵호 사람들. 그들에게 바다는 원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삶의 터전이자 희망이기도 하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명태와 오징어를 말리려면 바람이 좋은 언덕 위로 실어 날라야 했다. 지게에 지고 대야에 이고 오르다 보면, 물이 흐르고 지금처럼 시멘트 길이 아니라 흙길이었으니 묵호의 골목은 항상 논처럼 질척했다. 그래서 묵호에선 장화가 필수품이었다. 골목에 놓인 장화 안에 피어 있는 이름 모를 꽃, 벽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장화에도 이야기가 숨어 있다.

논골담길의 4갈래 이야기길 중 굳이 길의 이름과 순서와 상관없이 언덕 맨 위를 향해 오르면 등대전망대에 닿는다. 동해바다가 시원스럽게 펼쳐지는 언덕 위의 등대는 영화 <미워도 다시 한번> <연풍연가> <파랑주의보> <인어공주>, 애니메이션 <마리아 이야기>에 등장하는 어엿한 배우다. 바람의 언덕과 더불어 이곳은 동해시의 일출·일몰 명소다. 새벽에는 빛을 밝히고 짙은 어둠을 향해 출항하는 오징어잡이 배가 바다 위에 별뿔별을 만드는 풍경을 볼 수 있다. 등대전망대에는 무료 엽서가 준비돼 있다. 매달 마지막 주에 수집



해 1년 후 월초에 엽서에 적힌 주소로 배달된다. 조금 부끄럽지만 동쪽 바다 끝에서 새해의 첫 일출을 보며 떠오르는 사람이나 혹은 1년 후 나에게 엽서를 써보시길. 손으로 꼭꼭 눌러 적은 활자의 힘은 생각보다 크다. 등대전망대에 오르면 묵호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펼쳐진다.

## '라면 먹고 갈래요?' 영화 속 풍경이

벽화마을과 등대만 보고 투어를 끝내기 아쉽다면, 등대전망대 앞 논골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슈퍼에서 자판기 커피를 하나 뽑아 들고 삼분아파트 쪽으로 가자. 평범하지만 왠지 낯이 익은 길이 이어진다면 바다 쪽으로 뒤를 돌아보시라. 영화 <봄날은 간다>의 명대사인 '라면 먹고 갈래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를 주고받았던 풍경이 바로 거기다. 12월 중순부터는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바닷바람에 명태를 말리는 덕장에 명태가 주렁주렁 매달린 풍경도 볼 수 있다.

등대전망대를 등지고 바다 쪽으로 난 길로 내려가면 드라마 <찬란한 유산>에서 한효주와 이승기가 걸었던 빨간색 출렁다리를 볼 수 있다. 짧은 길이지만 바다가 보이는 붉은 다리는 충분히 낭만적이다. 논골담길 쪽 말고 출렁다리 쪽에서 여행 코스를 시작해 등대를 보고 벽화마을로 내려가도 되고, 벽화마을길로 올라와 등대를 보고 출렁다리 쪽으로 내려가도 된다.



**생선도 사람도 펄떡 뛰는 묵호항**

관광객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묵호의 민낯을 보고 싶다면 새벽 일찍 항구로 나가보자. 활기찬 경매 현장과 바다 위에 별처럼 반짝이는 새벽 조업의 풍경을 마주할 수 있다. 등대전망대에서 마을로 내려오면 바로 묵호항으로 이어진다. 묵호항은 1941년에 개항한 동해안 제1의 무역항이었다. 지금은 그때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어획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 새벽 바다 생물을 가득 실은 배가 묵호항으로 들어온다. 새벽 일찍 조업을 나갔던 배들이 하나둘 항으로 모여들고 그날의 수확물을 어판장으로 옮긴다. 빨간 모자를 쓴 수협 직원이 호루라기를 불면 숫자가 써진 모자를 쓴 경매인들이 모여든다.

예전엔 암호 같은 손짓으로 경매사에게 금액을 표시해 낙찰을 받았는데 요즘엔 본인이 원하는 낙찰가를 종이에 써서 경매사에게 주고 그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적어낸 사람이 낙찰을 받는 식이다. 낙찰받은 고기는 산소통을 매단 이동식 수족관인 리어카로 옮겨진다. 바로 옆 활어센터로 옮기는 짧은 시간에도 수산물의 싱싱함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팀워크가 좋은 이어달리기처럼 모든 일이 순식간에 척척 진행된다. 바다로 조업을 다녀온 어부가 수확물을 항에 내리면 경매인들이 재빠르게 판매하고, 누군가는 리어카로 실어 옮기고, 활어센터에서는 종류별로 나눠 손질하고 보기 좋게 늘어놓고 손님들 맞는다.

**칼칼한 강원도 장칼국수의 유혹**

서울에선 아침을 거르기 일쑤였는데 활기찬 새벽 항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허기가 몰려온다. 강원도 지역엔 된장과 고추장을 풀어 걸쭉하고 칼칼한 장칼국수가 유명하다. 장맛이 집집마다 다르듯 육수에 장을 푼다는 방식은 같지만 장칼국수도 가게마다 모두 맛이 다르다. 국수 마니아들에게는 입맛에 맞는 장칼국수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묘미.

유명하다는 한 곳에 들어가 장칼국수 하나를 주문하자 커다란 솥에 끓이고 있던 멸치·다시마 육수를 냄비에 붓고 호박, 파, 감자를 넣고 끓인다. 그리고 면과 장을 풀고 푹 끓여낸 다음 마지막에 달걀을 휘휘 저어 풀고 김가루와 깨를 얹어내면 끝이다. 너무 간단해서 냄새처럼 떡볶이 맛이 나거나 진한 라면 맛이 나려나 했는데, 그동안 먹어본 칼국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맛이다. 걸쭉하고 칼칼한 국물은 맵지도 짜지도 않다. 면은 쫄깃하면서 아들아들하고 중간중간 씹히는 호박과 포실한 감자가 맛을 더한다.



**볼거리·먹거리 가득한 시내구경**

든든하게 배를 채운 다음엔 묵호항에서 가까운 '동쪽바다 중앙시장'으로 가보자. 젊은 상인들이 모여 재미난 먹거리를 팔고, 작은 책방을 운영하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동쪽바다 중앙시장 바깥길에 있는 작은 책방은 동해 지역에 유일한 독립출판물을 판매하는 서점이다. 'LG 건축 전기조명'이라는 커다란 예전 간판을 그대로 두고 벽에 하얀 페인트만 칠해 책꽂이를 들여놓고 작은 서점으로 변신했다. 두 면이 큰 창으로 된 책방은 햇볕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마을버스와 기차가 지나다니는 풍경이 흐른다. 소설, 인문학, 독립출판물, 그림책, 심플라이프 관련 책 등 주인장의 취향이 묻어나는 책들이 오후의 햇살을 받고 있다.

시장 안쪽에 칼국수와 감자옹심이를 파는 음식점도 있고, 건어를 파는 곳도 많으니 동해에 온 김에 가족들과 함께 먹을 특산물을 장만하기도 좋다. 시장 한 편에 자리 잡은 '싱싱물'은 청년 상인들이 동해의 특징을 살려 개발한 재미난 먹거리가 있다. 문어로 만든 탕수육, 메밀부침 등 이미 배가 불러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냄새와 이름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이다. 여름엔 묵호야시장도 열려 여행자와 지역 주민에게 여름밤 볼거리와 먹거리를 선사한다. 🍀

**여행 속 착한가게**

푸짐한 상차림만큼 넉넉한 배품  
추암횃집



추암해수욕장 촛대바위 앞 횃집 거리에 위치한 추암횃집은 회 좋아하는 이들 사이에선 유명하다. 광어, 우럭을 비롯해 제철 횃집 창밖으로 동해가 시원스레 펼쳐진다. 푸짐하게 차려지는 밥상만큼 넉넉한 마음을 가진 추암횃집 박태권 대표. 박 대표는 사랑의열매 착한가게뿐 아니라 동해시민장학금, 해오름천사운동 등 시민장학금 지원, 저소득층에 물품 후원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자립 프로젝트 해피하우스다솜

## 체험홈 동고동락 ‘거위의 꿈’ 키운다

정신장애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자신만의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수많은 교육과 연습, 그리고 직접적인 체험이 필요하다. 이들의 성공적인 자립과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공동모금회가 나섰다. 글 김정아 / 사진 해피하우스다솜

정신장애인 3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해피하우스다솜은 충북 충주시에서도 외곽에 위치해 있다. 시내까지 나가려면 차로 30분 정도 걸리고, 버스 운행도 하루에 6회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장애인들의 자립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고 퇴소를 앞둔 장애인들을 아무런 준비 없이 내보낼 순 없었다. 고민 끝에 실제 독립된 생활을 미리 경험해 보는 ‘체험홈’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공동모금회와 삼성이 함께 지원하는 ‘나눔과꿈’ 공모사업에 신청, 충북 내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로는 유일하게 선정되면서 3년간 지원받게 됐다.

### 물건 구매·경제 관리 요령 등 배워

해피하우스다솜의 입소기간은 3년이다. 이 기간 동안 정신장애인들은 사회 복귀와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한다. 하지만 실전 경험이 많지 않기에 퇴소 후 이들의 자립 생활이 유지되는 경우는 드물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불안감이 크다. 충분히 자립할 수 있어 보이는 장애인도, 가족들의 반대로 또다시 다른 기관으로 들어가는 사례도 있다.

사업을 담당하는 황순원 사회복지사는 “장애인 가족들도 그들의 자립을 무엇보다 원하지만, ‘과연 혼자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다. 한 번도 그들이 혼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자립을 결정해도 지역 주민들의 시선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안타까워했다.

해피하우스다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자 체험홈을 시행했다. 현재 체험홈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남성 3명, 여성 3명 총 6명이다. 이들은 일 년 정도 체험홈에서 생활하면서 자가약물복용 및 병원진료, 물건 구매, 경제 관리, 취미생활 갖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게 된다.

### 가장 두려운 것은 외로움과 편견

체험홈에 거주하고 있는 이희영(가명)씨는 평소 환청 증상으로 혼잣말을 하거나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하는 일이 많다. 낯선 행동에 이웃들은 거리를 두고, 불안해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한 주민이 담당 복지사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고, 그녀의 행동이 조현병의 증상 중 하나고 약물치료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줬다. 그저 낯설게만 보고 거리를 뒀던 주민은 희영씨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다.

정신장애인들의 자립을 방해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편견이다. 그들의 행동이 낯설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질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장애인 기관은 주요 생활권에서 벗어나 외곽에 위치해 있다. 다르다는 이유로 고립되다 보니 점점 사회 복귀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며 생활해야 서로 간의 벽이 사라지고, 다름을 인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체험홈 거주자들은 취미활동과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 입소 6명 중 3명 자립 앞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자립 생활로 인해 걱정하는 ‘외로움’도 해결될 수 있다. 실제로 30대 이운희(가명)씨는 한때 대인기피 증상을 보이며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체험홈에 거주하면서 교회 행사나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체험홈에서 거주하는 정신장애인들은 직접 장을 보기도 하고 지역 내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 복귀를 준비한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체험홈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1년가량이 됐다. 총 6명 중 3명이 체험홈 퇴소 후 자립을 하게 된다. 물론 다른 3명도 지속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장애인에 비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다. 정신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더불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정신장애인의 자립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 완벽하게 자립 준비를 끝냈다고 해도, 그들이 설 곳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들만의 동지에서 벗어나 더 큰 세상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

## 함께 행복한 꿈을 꾸는 길, “우분투”

글 이주희(인천 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 대리)

공동모금회에 입사한 지도 벌써 6년이 넘었다. 끊임없는 전화벨 소리와 서류들 속에서 몇 번의 계절을 보낸 것 같은데 이런저런 추억들과 감동으로 여전히 오늘도 일하고 있다. 일하다 문득문득 ‘어쩌다가 내가 여기에 있는가’를 떠올리곤 한다.

어린 시절부터 평화를 갈망했다. 사람의 행복은 평화에서 온다고 생각했고, 갈등과 고통이 없는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가는 것이 인류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며 세계 평화를 마음에 품었다. 오랫동안 품어 왔던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고 싶은 꿈을 위해 근 3년의 시간을 백수로 보냈다.

백수의 시간 동안 비장하게 세계 평화를 지키겠다는 각오보다, 하루하루 먹고살 것을 고민하며 삶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배웠다. 가세가 기우는데도 꿈을 이루겠다는 욕심으로 가족의 평화를 빼앗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평생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이 가정의 평화조차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가족의 행복을 해치고 있었다. 그러면서 깨달았다. 먹고살아 갈 고민이 덜어지는 것에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것이 시작이었다. 평화를 지키는 가장 쉽고,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바로 가정과 같이 가장 가까운 곳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길을 접었다. 사람들의 삶에 행복을 지키는 가장 실제적인 것으로 사회복지를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이 이어져 2년간 사회복지자를 공부하고 공동모금회에 입사하게 되었다.

### 힘들고 지칠 때마다 떠올리는 한 단어

입사를 하고 일을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생각에 낙심도 하고 실망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이곳의 의미를 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다양한 모금사업을 담당하며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다. 본인이 수급자이면서도 다음 세대는 본인처럼 배고프거나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전 재산을 기부한 유산기부 할머니. 5년 넘게 할머니는 빌 때마다 고개가 숙여지는 검소함을 보여주셨고, 그 검소함 속에서 더 기부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몫을 준비하신다. 사랑의열매 봉사단 봉사자들도 각자 생업이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시간을 쏟는 것을 즐거워한다. 거리에서 힘들게 색소폰 공연을 하며 모금한 돈을 기탁하는 직장인 봉사단분들도 이런저런 민원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을 법도 한데 불평 하나 없이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봉사하고 기부할 수 있어서 기쁘다는 말을 들려준다. 기업을 경영하는 기부자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며 늘 격려를 보내주신다.

때로는 일을 하다 몸과 마음이 지칠 때, 그동안 함께한 직원들과 기부자, 봉사자분들의 말을 통해 힘을 얻는다. 그런 힘이 되는 모든 분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말이 있다. 우분투(UBUNTU),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로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다.

우분투의 유래는 이렇다. 어느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한 부족의 아이들에게 달리기 시합을 시켰다. “나무 밑에 1등으로 도착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게!” 1등 선물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과 과자가 가득한 바구니 한 개를 매달아 놓고 먼저 도착한 아이가 그것을 먹을 수 있다며, 출발을 외쳤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느 누구도 혼자 먼저 뛰어가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들은 모두 손을 잡고 한 줄로 나란히 달려가는 것이었다. 이를 본 인류학자는 아이들에게 질문한다. “한 명이 먼저 달려가면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왜 다 같이 손을 잡고 뛰어갔지?” 아이들은 “우분투”라고 외친다. 오히려 “나 혼자서 과자를 다 가지면 다른 친구들이 모두 슬퍼할 텐데 어떻게 나 혼자만 행복해질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나 혼자만 행복해질 수 있나요? 라는 아이들의 질문이 평생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인 것처럼 뇌리에 박혔다. 그리고 늘 생각한다. 결국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 평화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그 꿈이 지금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 기부자와 봉사자, 공동모금회의 또 다른 이름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일은 가정과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소외된, 행복을 잃어버린 이웃들을 공동체가 함께 돌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는 조직이다. 결코 공동모금회라는 조직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함께해 주시는 기부자와 사회복지기관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3년간의 비장했으나 참혹했던 백수의 시간 동안 나는 저소득층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직면하며 평화와 행복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때의 어려움에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을 떠올릴 때마다 감사하고, 그 감사를 갚는 길은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감사하게도 내가 늘 기억하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뜻의 우분투라는 말은 그동안 일하면서 만난 많은 기부자와 봉사자들이 나에게 보여준 행동의 또 다른 이름 같다. 공동모금회의 또 다른 이름 같다. 돈과 시간과 마음으로 함께해 주는 분들의 또 다른 이름 같고, 나의 평생의 꿈과 같고 열매와 같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서 저마다 직면하는 갈등과 문제들은 싸움이나 경쟁으로는 결코 풀 수 없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주변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함께하는 삶의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더 많은 사람이 이런 작은 삶의 기적을 만드는 일에, 행복을 더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

# 여러분의 정성으로 쌓인 사랑입니다

지난 11월 같이가치 with kakao를 통해 모금 사연을 신청하여 공동모금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모금대상은 25건이었고, 모금이 완료된 건수는 16건, 모금액은 3,482만 원입니다. 이 중 TV 밖 세상 구경을 떠난 홀어르신들의 이야기와 위탁가정에서 새로운 엄마·아빠를 기다리는 아기들의 사연을 전합니다.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인 '같이가치 with kakao(Together, kakao.com)'는 누구나 참여하고, 기부할 수 있는 모금플랫폼입니다. 같이가치에서는 기부자가 직접 원하는 사연에 기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SNS에 사연을 공유하거나 응원, 댓글만 써도 카카오가 100원씩 대신 기부합니다. 같이가치를 통해 지원받고 희망을 되찾은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전해 드립니다.



## 하루종일 TV만 바라보는 홀어르신들의 무료한 일상

이영자(가명) 할머니는 매주 월요일 9시부터 전화기만 바라봅니다. 바로 센터 직원들이 안부전화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전화벨이 한 번도 채 울리기 전에 할머니는 반갑게 전화를 받습니다. “선생님하고 이렇게 전화하니깐 말이 좀 느는 것 같아. 집에 있으면 하루종일 TV만 보고 말을 안 하니깐...” 대화 상대가 없어 혼자 쓸쓸하게 지내시는 할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이영자 할머니처럼 사회적 관계가 단절돼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TV 속 세상이 아닌, 진짜 세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행지에서 또래 친구들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서로 얘기하며, 아픔도 공유하면서 치유의 시간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모두 함께 어르신들의 여행을 응원해 주세요.

## 80여 어르신 모시고 바깥 나들이... 스트레스 씻어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80여 명의 홀어르신들이 무사히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TV로만 봤던 드넓은 억새밭을 보며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우울감을 잠시나마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슬아슬한 곡예의 동춘서커스를 보며 신나게 웃고 박수를 치다 보니 스트레스도 모두 날려 버렸습니다.

이번 나들이에 함께했던 윤씨 할머니는 올 초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매일 눈물로 보내셨습니다.

고령으로 다리가 불편했지만, 자원봉사자들이 곁에서 보조하며 말동무가 돼 줘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윤씨 할머니를 비롯해 홀로 외롭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 잠시나마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 등 새 부모 기다리는 아기들에 응원을

민기(가명·5개월)와 민준(가명·5개월)이는 쌍둥이 형제로 0.97kg, 1.11kg의 극단적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민기는 괴사성 소장결장염으로 소장 절제술 및 장루설치술을 받았고, 이후 수술한 부위가 탈장 증상을 보여 한 차례 더 수술을 받았습니다. 민준이 역시 패혈증, 태변성장폐색증, 무호흡 등으로 5개월 동안 입원해 치료받았습니다. 쌍둥이의 친모는 당장의 생계도 어려워 쌍둥이를 양육할 수 없어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홀트충청사무소에는 민기·민준이뿐만 아니라 매달 20명 정도의 아기들이 위탁가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양육비용은 정부에서 지급되는 생계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위탁가정에 맡겨진 아이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 23명의 아기가 사용할 분유와 기저귀 전달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으로 홀트충청사무소에서는 분유 29박스, 기저귀 82박스를 구입했습니다. 아동 1인당 분유는 두 달에 1박스(12캔, 개당 800g), 기저귀는 한 달에 1박스(3~4팩)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위탁가정에 지급되는 수고비로도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아동들이 입양부모를 만나기 전까지 돌봐주시는 위탁가정에 물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아기 용품을 구매하는 것이 부담돼 편한 마음으로 양육하지 못했던 위탁어머니들도 무척 기뻐하시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친부모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접 키울 수 없어 위탁가정으로 보내져 새로운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아기들. 그 아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좋은 엄마·아빠를 만나 사랑을 듬뿍 받고 든든한 울타리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모금 달성 현황

직접 기부  
444명 / 318만 7,000원  
참여 기부  
8,566명 / 85만 3,200원  
모금액  
404만 200원

###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 입장료 및 체험활동비 195만 5,000원
- 식사비 68만 원
- 버스비 70만 원
- 간식비 35만 5,000원
- 기타(여행자보험, 사진인화, 현수막 등) 35만 200원

### 담당기관

참사랑재가노인지원센터

### 모금 달성 현황

직접 기부  
491명 / 618만 3,300원  
참여 기부  
4,447명 / 44만 900원  
모금액  
662만 4,200원

###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 기저귀 304만 2,000원
- 분유 292만 3,200원
- 양육물품(의류 등) 65만 9,000원

### 담당기관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중앙회

# 2018 '나눔과꿈' 지원 기관 51곳 선정 1,105 기관 응모 22대1 경쟁률 기록

삼성전자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2월 19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2018년 나눔과꿈 공모사업으로 지원할 51개 기관을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2회를 맞는 이 사업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업을 실행할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7월부터 접수를 시작한 이번 사업은 1,105개 기관이 응모해 최종 경쟁률 22대1을 기록했다.

올해는 시각장애인의 책 가뭄 해결을 위한 e북 클라우드 구축사업을 기획한 'IT로 시각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저소득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세어하우스 조성사업을 준비 중인 '사회투자지원재단' 등이 선정됐다. 이번엔 선정된 비영리 단체는 최대 5억 원의 사업비를 2018년 1월부터 지원받아 최장 3년간 사업을 수행한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봉사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100여 개 단체가 사업에 응모하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통해 그늘지고 어려운 이웃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2018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지역별 온도탑 제막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영석)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 서울시 25개 구와 함께 '2018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21일 강서구에 사랑의온도탑을 세우고 제막식을 진행했다. 이날 '서울 나눔 명사 열매달기 행사'를 진행, 강서구 1호 명사로 노현송 강서구청장이 참여했다. 이어 27일에는 도봉구청, 12월 1일에는 광진구, 13일에는 구로구에서 사랑의온도탑 제막식을 차례로 진행했다.



### 30·40대 아너 클럽 'Seoul Honor 3040' 모임

12월 7일 사랑의열매회관에서 서울 공동모금회 30·40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Seoul Honor 3040' 모임을 가졌다. 젊은 기부자들로 구성된 소모임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기부자의 이해와 회원 간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모금회 신뢰도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기부를 고민하고 구체적인 나눔활동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취지다. 또한 아너 3040 모임 활성화 및 특화 사업을 논의하고, 추가 회원 유치와 모금액 증가를 위해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충남



### 롯데장학재단, 나라사랑 보금자리에 3억 원

롯데장학재단은 지난해 11월 22일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지원금 3억 원을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관형)에 기탁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는 충남 공동모금회와 육군본부가 진행하는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선정,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프로젝트다. 이번에 지원된 기금은 참전용사 4명의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고, 10여 명의 참전용사의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 도내 15개 시·군 아너 실현

충남 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이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김용표 주안레미콘 회장이 계몽시 첫 아너에 가입하면서 시·군 아너 회원이 탄생한 것이다. 지난 2012년 부여군 이훈구 해성당한약방 원장이 충남 첫 아너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충남은 5년 동안 총 74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천안 23명, 공주 6명, 보령 3명, 아산 3명, 서산 3명, 논산 8명, 계룡 1명, 당진 5명, 금산 2명, 부여 8명, 서천 1명, 청양 3명, 홍성 2명, 예산 3명, 태안 3명 등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다.

전북



### 도내 아너 회원들, 김장김치 봉사활동

전북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12월 7일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아동들을 위해 모였다. 이날 행사는 전북 아너 총회를 진행한 후,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로 이어졌다. 이 행사에는 전주시 코끼리유치원 아이들과 행복한밥상푸드봉사단이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봉사활동으로 마련된 350포기의 김치는 전주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엄마의밥상' 대상 아동 210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 전북 착한가게 1,300호 돌파

전북 공동모금회 착한가게가 1,300호를 돌파했다. 1,300호의 주인공은 군산시 지곡동에 위치한 '민선초가'로, 군산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채영숙 단장의 권유로 가입하게 됐다. 황연순 민선초가 대표는 "평소 나눔활동을 몸소 실천하는 채영숙 단장님을 보고 나눔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작은 정성이 모여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이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고 가입소감을 밝혔다.

대전



롯데백화점 대전점 임직원, 사랑의 연탄 기부

12월 14일 롯데백화점 대전점(점장 김윤중)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안기호)를 통해 사랑의 연탄 1,140장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연탄은 직원 종교물품 나눔장터의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김병성 롯데백화점 사원대표는 "직원들 모두 한뜻으로 정성껏 준비한 연탄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올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 공무원·가족 예능작품 경매수익금 전달

대전광역시시는 12월 7일 대전 공동모금회를 방문해 대전시 공무원 및 가족들이 함께 참여한 예능작품전 경매 수익금 71만 5,000원을 전액 기부했다. 이번에 전달된 수익금은 공무원 및 가족들이 숨은 장기를 뽐내고 재능을 나눌 수 있는 '대전시 공무원 예능 작품전'에서 입상한 작품 19점과 개인 소장품, 관련 협회 기증 작품 등 총 35점에 대한 경매로 얻어진 것이다.

인천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이웃돕기 성금 3억 원 전달

12월 13일 스카이72골프클럽에서 열린 '스카이72 러브오픈'을 통해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대표이사 사장 김영재)가 이웃돕기 성금 3억 원을 전달했다. 스카이72 러브오픈은 스카이72가 2005년 오픈 당시 화려한 개장 행사 대신 공동모금회에 자선기금을 전달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올해로 13번째가 된다. 그동안 총 78억 3,000만 원을 기부하며 사회 곳곳에 나눔을 전했다.



선광, 저소득가정 따뜻한 겨울 위해 1억 원 기부

(주)선광(대표 심충식)은 12월 18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정명환)에 이웃사랑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주)선광 계열사인 (주)힐라선(대표 심장식), (주)화인파트너스(대표 심장식)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인천 관내 저소득층, 소외계층, 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주)선광은 1998년부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동안 총 11억 8,3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경기



경기 모금회, 수원시청에 사랑의온도탑 세위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순선)와 수원시가 12월 1일 수원 시청에서 '희망2018나눔캠페인, 나눔으로 따뜻한 휴먼복지 수원'을 위한 사랑의온도탑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도 달성을 지원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여러 기부자가 참가해 성금을 전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오늘 소중한 성금을 전달해 준 기부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금씩 나눌 수 있는 온정 넘치는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도내 사회복지기관에 승합차량 지원

경기 북부, 도내 사회복지기관에 승합차량 지원 경기 공동모금회 북부사업본부는 12월 13일 의정부시에서 '2017년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일반차량 지원 사업'을 위한 차량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지리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지역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의 복지 증진 및 편리한 이동 수단 제공을 위해 시행됐다. 약 5억 원 상당의 승합차량 19대는 지원대상별로 노인 3곳, 아동·청소년 7곳, 장애인 6곳, 여성·다문화 2곳, 지역사회 1곳에 지원될 예정이다.

광주



대유그룹, '희망2018나눔캠페인'에 2억 5,330만 원

12월 4일 대유그룹(회장 박영우)은 KBC 광주방송 사장실에서 사랑의열매 전달식을 갖고 기부금 2억 5,33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마련된 성금은 박영우 회장이 사재 5,000만 원을 기부했고, 계열사인 스마트저축은행에서 1억 원, 대유에이텍이 5,000만 원, 대유에이텍 임직원 일동 329만 5,000원, 대유위니아가 5,000만 원 상당의 현물 등을 내놓아 마련된 것이다. 한편 대유위니아는 지난해 7월 본사 및 생산공장을 광주로 이전하면서 제습기 100대를 기부하기도 했다.



정원주 광주 패밀리 아너 1호, 희망2018나눔캠페인 성금 기탁

11월 27일 정원주 중흥건설(주) 사장이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상열)에 성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정 사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원주 아너는 이화진(광주 40호)아너와 광주 5호 부부 아너 회원이며 정창선(중흥건설(주) 회장-광주 45호), 안양남(중흥건설(주) 감사, 광주 46호)와 광주지역 1호 패밀리 아너 회원으로 활동하며, 광주FC 후원, 광주시 문화재단 등 다양한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경남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 급여 나눔으로 성금 마련

12월 4일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조성엽)는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철수)를 방문해 임직원이 함께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직원들의 급여 우수리 나눔으로 모인 것과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금액을 합한 것이라 더 뜻깊다. 조성엽 본부장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나눔에 동참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에너지, 변함없는 지역사랑 나눔 실천

경남에너지(대표 강인구)는 12월 18일,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철수)를 방문해 경남 도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성금을 기탁했다. 기탁한 성금 6,000만 원은 경남에너지 임직원의 모금과 회사의 매칭그랜트로 조성되었으며, 도내 어려운 이웃의 생계·의료·교육비 등과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사업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부산



부산 저소득층 주민에 월동난방비 6억 원 지원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정택)와 부산시(시장 서병수)는 12월 15일 부산시청에서 2017년 기획사업 ‘행복한준더 지원 사업’ 전달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부산시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진행하는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부산 지역 저소득층 6,000가구에 각 10만 원씩 총 6억 원을 지원한다. 신정택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총회 개최

11월 30일, 영도 목장원에서 박재민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신정택 부산 공동모금회장을 비롯해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너의 지난 10년간의 성장 과정과 회원들의 활동을 돌아보고, 2018년 부산 지역의 아너 소사이어티의 활동 계획과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전남



전남약사회, 2,200만 원 상당의 내의 600벌 전달

12월 5일 전남약사회(회장 최기영)는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정)에 2,200만 원 상당의 겨울 내의 600벌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다. 최기영 회장은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주변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전달된 내의가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남 도의회에서 희망지킴이 기부 릴레이 선포식

전남 공동모금회는 12월 13일 전라남도의회(의장 임명규) 본회의장 앞에서 ‘희망지킴이 기부 릴레이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임명규 의장 및 도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산타모자를 쓰고 기부에 동참했으며, 전남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 희망지킴이가 되어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희망지킴이 기부 릴레이’는 전라남도의회를 시작으로 희망2018나눔 캠페인 기간 동안 22개 시·군 의회를 순회하며 진행될 계획이다.

울산



대한유화, 20억 원 통 큰 나눔

11월 27일 대한유화(주)(대표이사 정영태)가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장광수)를 통해 20억 원을 기부하며 희망2018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정영태 대표이사는 “올해도 가난과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성금을 준비했다. 대한유화(주)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7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송년의밤 개최

울산 공동모금회는 12월 6일 아너 회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송년의밤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1년간 울산의 나눔문화를 이끈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더 발전된 울산의 나눔문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아너 클럽 발전을 위해 애쓴 공로로 윤영선(아이유 안과병원 원장), 손웅연(춘당 대표), 김유문(주)한국동문 대표이사, 이필남(고운건설 대표이사) 아너가 공로상을 수상했다.

강원



춘천시 나눔봉사단과 춘천 아너들, 월동 김치 전달

11월 23일 춘천시 나눔봉사단(단장 박선남)은 500만 원 상당의 월동 김장 김치를 담그고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석사3지구 아파트 단지의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위해 춘천시 나눔봉사단과 춘천 지역의 아너 50여 명이 모여 진행됐다. 박선남 단장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봉사활동에 참여해 준 봉사단원들과 춘천 지역 아너분들께 감사하며, 김치를 전달받은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고 전했다.



강원 최연소 아너 여지영 대표, 장학금 1,000만 원 기탁

12월 15일 여지영 행운터부동산컨설팅 대표가 강원대학교를 찾아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도내 최연소 아너인 여 대표는 올해 모교인 유봉여고 학생들에게도 장학금 3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지난해 아너 가입 이후 현재까지 8번의 기부를 통해 4,900만 원을 기부했다. 여 대표는 “나도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성장할 수 있었다. 지역 인재 양성에 밑거름이 되는 장학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



삼송비엔씨, 제품에 사랑의열매 달고 수익금 기부 약정

12월 19일 (주)삼송비엔씨(대표 박성욱)는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함인석)와 'CRM 협약식'을 가졌다. 전국 35개의 삼송 빵집 전 지점에서 판매하는 빵에 '사랑의열매' 로고를 부착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할 계획이다. 박성욱 대표는 “3대째 대구 시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특별한 나눔을 실천하기로 했다. 앞으로 나눔으로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장 서도록 하겠다”고 나눔의 소감을 밝혔다.



서보, 부부 아너 가입에 이어 성금도 1억 원

(주)서보(회장 이덕록)는 12월 19일 대구 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덕록 회장은 2014년 4월 대구의 28호 아너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2015년 7월에는 이덕록 회장의 아내인 윤정희씨도 아너로 가입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15명의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해 전 직원이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이 됐다.

경북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사랑의 연탄 1만 장 기부

11월 29일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회장 배인호)는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현수)에 600만 원 상당의 사랑의 연탄 1만 장을 기부했다. 이번 연탄은 도내 소외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자 배인호 회장과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이다. 이날 배인호 회장과 회원들은 칠곡군 왜관읍 일원에 흩어져 있는 가정방문, 연탄배달 봉사를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경주시보건소, 아름다운 건강검거사업 성금 전달

경주시보건소(소장 김정희)는 12월 1일 '아름다운 건강검거 사업' 성금 820여만 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경주시보건소는 3월부터 경주시민들에게 걷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걷기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걷기 캠페인을 추진, 시민 1명당 일정 거리를 걸을 때마다 500원에서 1,000원을 기부해 걷기마일리지로 적립해 왔다. 이렇게 모은 마일리지 적립금 550만 원에, 참여 시민 1명당 걷기를 실천하면 100원씩 모은 실천저금통 성금 270여만 원을 더해 성금을 마련했다.

충북



김해림 골퍼와 팬클럽, 청주 현양원에 따뜻한 선물

기부천사로 유명한 프로골퍼 김해림 선수와 팬클럽 해바라기 회원 20여 명은 12월 19일 청주의 아동복지시설인 현양원을 찾아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달했다. 이날 김해림 선수는 아동들에게 신발과 최신형 PC 8대를 지원했고, 팬클럽은 대형김치냉장고 1대를, 삼성디지털프라자 청주봉명점은 냉장고 1대를 지원했다. 한편 김해림 선수는 우승상금의 10%를 매년 기탁해 오고 있으며, 2016년에는 생애 첫 우승상금인 1억 원을 전액 기부하기도 했다.



도내 사회복지기관에 차량 42대 지원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명식)는 12월 19일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42곳의 이동 서비스 향상을 위한 '2017년 신청 및 복권기금사업 차량지원사업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지원된 차량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수요설문조사를 통해 사업 특성에 맞게 어린이보호 중형승합차 6대, 중형승합차 25대, 경승합차 8대, 1톤 화물트럭 2대, 25인승 중형버스 1대로 총 5가지 종류가 지원됐다.

세종



어린이집연합회, '이웃과 더불어 사랑나누기' 전달식

12월 14~15일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인숙)는 세종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홍영섭)와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사랑나누기'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전달된 동전은 지난 9월부터 세종 지역 어린이집 아이들이 저금통에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세종 지역 어려운 아이들에게 지원된다. 2014년부터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아이들이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는 배려심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세종 나눔리더·나눔리더스클럽 1호 탄생

오남한 조치원성당 주임신부와 조치원성당 신도들이 세종 공동모금회 나눔리더와 나눔리더스클럽 1호로 가입했다. 12월 21일 가입식에 참석한 오 신부는 "나눔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 많은 시민이 함께 나눔의 뜻에 동참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눔리더는 100만 원 이상 일시 기부하거나 1년 내에 기부 약정할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나눔리더스클럽은 일시 또는 3년 내 1,000만 원 이상 기부한 모임 및 단체면 가입할 수 있다.

제주



제주개발공사, 취약계층 4,300가구에 김장 나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와 제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는 12월 12일 제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제주삼다수와 함께하는 2017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200여 명의 봉사자들은 4만 3,000kg의 김장김치를 손수 담근 뒤 도내 사회 취약계층 4,300가구에 전달했다. 한편 제주개발공사는 취약계층에 명절 차례상 비용 지원과 감귤주스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나눔사업을 하고 있다.



5년째 이웃사랑 한돈 나눔행사 진행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김영선)는 12월 5일 '이웃사랑 한돈 나눔행사'를 개최하고, 4,400만 원 상당의 제주산 돼지고기를 제주 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돼지고기는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제주시 지회와 서귀포시 지회를 통해 제주시·서귀포시 관내 홀어르신 가구에 전달됐다. 김영선 회장은 "어렵게 생활하시는 홀어르신들 가정에 전달돼 어르신들의 건강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판매 수익금의 1%가 사랑의열매에 기부됩니다

생활에 재미를 더하다  
세상에 나눔을 더하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PIECEMAKER

\*CRM(Cause Related Marketing·공익연계마케팅)이란, 기업이 비영리 기관에 자사 브랜드의 수익 중 일정액을 기부함으로써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나눔의 한 방법이다.



#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결심, 고맙습니다!

아너 소사이어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하였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와 지원을 통해 더 밝은 내일을 여는 사회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한국형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현하고 있는 아너 소사이어터는 나눔문화를 선도하고 진정한 나눔가치를 창조해 나가고 있으며, 나눔을 실천하는 국내 최대의 기부자 클럽입니다.

## 12월 아너 소사이어터 가입 회원 (11월 21일~12월 20일 기준)

경기 159호  
이인구 일통금융 회장



“80세를 넘기면서 많은 사람의 도움과 사랑을 받았다. 여태껏 받은 도움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팔순 잔치 대신 기부를 실천하게 됐다.”

대구 108호  
이보형 룩스컴퓨터 대표



“늘 아너 소사이어터 가입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평소 친분이 있던 대구 아너의 권유로 용기를 냈다. 나눔을 고민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나 역시 도움이 되고 싶다.”

대구 109호  
이기환 거한건설 주식회사 대표



“평소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면서 더 큰 나눔을 실천해야겠다고 결심해 아너에 가입했다.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에게 힘이 되고 싶다.”

경남 105호  
강인숙 창원대 명예교수



“나눔을 실천한 사람들은 나눔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알 것이다. 그 행복감을 늘 느끼고 싶고, 나눔은 멈춰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해 가입했다.”

부산 132호  
정창교 국제식품 회장



“나눔은 우리를 진정한 부자로 만들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다. 더 많은 사람이 행복의 길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다.”

부산 133호  
박기대 해물왕창칼국수 대표



“기부는 이자 없는 빛이라는 생각에 5년간 성실히 일해서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냈다. 나처럼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울산 73호  
권오영 前 울산광역시교육위원장



“33년 동안 교직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보았다. 그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다고 생각해 온 것을 실천했을 뿐이다.”

울산 74호  
김광배 (주)삼정 대표이사



“어머니께서 항상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오늘 어머니와 함께 아너에 이름을 올리게 되어 기쁘다.”

울산 75호  
하연관 동울산새마을금고 감사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자라온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 쓰겠다.”

울산 76호  
이강수 자산정보통신(주) 대표이사



“평소 아너 가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재혁 아너 클럽 회장님의 권유로 가입을 결심했다. 좋은 분들과 좋은 일을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인천 112호  
정덕수 (주)삼정유엔디 대표이사



“소리 없이 수고하시는 복지계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나눔이란 봄의 햇살과 같다고 생각한다. 추운 겨울 이웃들에게 따뜻하게 전달되기를 바란다.”

인천 114호  
서정섭 동신관유리공업(주) 회장



“대표이사직에 물러나며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주변에 대해 감사를 드리게 된다.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됐으면 한다.”

전남 62호  
이남규 (주)대창식품·더원푸드 대표이사



“우리의 나눔이 사랑으로 먼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나눔으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더 많은 분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전남 63호  
정호경 정호경치과 원장



“진료를 통해 얻은 이윤의 일부는 지역 내 소외된 이웃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눔을 실천해 왔다. 앞으로도 더 행복한 강진이 되는 데 힘을 보태겠다.”

전북 40호  
이찬규 교육공무원 퇴직



“70년을 사는 동안 많은 이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다. 가진 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는 받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싶다.”

광주 64호  
기세운 기세운·기세용 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광주 지역에서 법조인 아너로는 처음이라고 들었다. 이번 가입으로 지역 내 법조인들의 나눔문화가 더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제주 76호  
故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신 의장은 의원으로 재직할 때부터 ‘퇴직하면 미약하나마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해왔다. 이에 아내 김영순 여사가 뜻을 받들어 아너에 가입했다.

제주 77호  
현용행 성산일출봉농협 조합장



“농협의 철학인 ‘같이의 가치’를 통해 함께 나누고 동행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꿈이다. 앞으로도 농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중앙회**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 이기주 작가, 우규민 삼성 라이온즈 야구선수, 이기동 님

**충남 공동모금회** 정종천 (주)보림씨에스 회장, 김용표 주안레미콘(주) 대표이사, 익명

**경북 공동모금회** 박지혜 님, 익명

**인천 공동모금회** 익명

**경기 공동모금회** 익명 6인, 조용기 (주)바이오닉트 대리, 김정훈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연구원, 김종영 연세내과 원장, 김명돌 광고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경남 공동모금회** 익명

**대구 공동모금회** 이재실 (재)우성공무원연수원 이사장

**강원 공동모금회** 서용관 (주)에이스 대표



## 뜨끈한 국물 음식으로 겨울철 체온 높이세요

무더위만큼이나 매서운 한파를 이겨내기 위해 보양식을 챙기는 이들이 많다. 특히 노약자의 경우, 체온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건강이 악화돼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따뜻한 국물 음식이나 체온을 높여주는 음식을 통해 외부의 찬 기운을 막아주는 것이 좋다. 또한 겨울철에는 활동량은 적지만 체내 에너지 소모가 많기에 소화 잘 되면서 열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단백질 풍부해 보양식으로 최고 삼계탕

닭고기는 원기를 더해주고 위장과 비장을 따뜻하게 해 소화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예부터 약용으로 많이 사용됐다. 단백질은 풍부하고 다른 육류에 비해 지방 함량이 적어 활동량이 적은 겨울철에 안성맞춤. 식감이 부드럽고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소화력이 떨어진 사람이나 원래 위가 약한 노인·어린이가 먹기에도 좋다. 또한 닭고기에는 비타민B<sub>2</sub> 등이 풍부해 겨울철 많이 생기는 피부염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 중국의 전통음식 회귀

이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부사부만큼이나 잘 알려진 회귀는 중국에서 겨울철 보양식으로 애용돼 왔다. 양고기를 기본으로 하고 고기와 채소를 매운 홍탕과 담백한 백탕으로 분리된 냄비에 넣고 오



랫동안 끓인 후 먹는 방식이다. 따뜻한 국물 음식이기에 겨울철 몸을 데워주며, 신선한 고기와 채소를 익혀 먹는 방식이라 영양적으로 균형도 좋다. 또한 회귀의 홍탕은 양·돼지·소·닭 등 각종 고기는 물론 사천고추·팔각·계피·후추·회향 등 몸에 좋다고 알려진 각종 한약재를 이용해 만들어 보양식으로 제격이다.

### 겨울철 보양 음식의 최고봉 굴국밥



굴은 바닷물이 1도라도 더 차가워야 탱탱하게 씹는 맛과 향긋한 감칠맛이 강해 1월이 가장 맛있다. 겨울철 지친 몸을 회복시켜 주는 대표 보양식인 굴은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몸의 나쁜 물질을 해독해 주는 역할을 하고, 각종 미네랄과 타우린 함량이 높아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 특히 철분과 구리가 풍부해 빈혈이 심한 여성들에게 좋다. 굴국밥을 끓일 때 무를 함께 넣어주면, 음식의 소화도 돕고 겨울철 목감기나 기침·가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 글 김정아 / 사진 셔터스톡



## 혈압이 높으세요? 동장군 한파 댄 특히 조심

서울과 전국 주요 도시의 기온이 영하 10도로 떨어지는 겨울 추위가 시작됐다. 허리를 시리게 하는 찬바람이 치가 떨리게 싫지만 문제는 한기가 혈관에 무리를 준다는 데 있다. 특히 혈압의 경우 대기가 차가워지는 늦가을부터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평소 혈압이 높다면 더 오르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해야 한다. 혈압은 무더운 여름엔 오히려 낮아지지만 찬바람이 나는 가을과 겨울엔 급상승하곤 한다. 날씨가 추워지면 땀 분비가 적어지고 이로 인해 말초 혈관이 수축돼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통상 겨울철엔 여름에 비해 수축기 혈압이 7mmHg, 이완기 혈압은 3mmHg 정도 상승한다. 겨울철 혈압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람은 고혈압 증상을 갖고 있거나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다. 이들의 혈관은 혈액 속 찌꺼기가 오랜 기간 축적돼 혈관벽이 두꺼워진 데다 탄력 또한 낮아서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한다. 이로 인해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 수축으로 혈압이 손쉽게 높아진다. 만성콩팥병 환자도 주의가 필요하다. 콩팥병은 혈중 나트륨 농도를 높이곤 하는데 이를 낮추기 위해 체내 수분이 혈액으로 흘러들게 된다. 더욱이 신장 기능의 저하로 소변이 배출되지 않아 혈액량이 늘고 이는 고스란히 혈압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외에도 비만과 대사증후군, 당뇨병과 이상지질혈증 증상을 갖고 있다면 잠재적인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고 하체 운동 꾸준히 하면 좋아

추운 겨울엔 온탕에 몸을 담그는 뜨거운 물 목욕이 건강의 비결이다. 하지만 뜨거운 물에 의해 체온이 오른 상태에서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와 고령층은 사우나와 온탕보다는 40도 아래의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하는 게 혈관 단련에 좋다. 운동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근육을 강화시켜 혈압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최고의 혈관관리 방안이다. 특히 운동은 혈관 내 피세포에서 산화질소를 생성하게 한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기능을 갖고 있다. 운동은 일주일에 5회, 하루 45분 이상 하는 게 효과적이다. 언덕이나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등 근육이 밀집해 있는 하체 위주의 운동을 집중해서 하면 혈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야외에서 운동을 하거나 장시간 외출을 할 때는 후드티나 모자 착용을 통해 머리를 따뜻하게 하는 게 좋다. 머리는 신체 부위 중 가장 먼저 체온이 떨어지는 부위로 머리의 열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체온이 손쉽게 떨어지게 된다. 모자와 목도리만으로도 2도 이상의 체온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며 겨울 한기에 체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한다. ❀

글 이일섭 / 사진 셔터스톡



# <사랑의열매>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지난호 독자의견

장애청년드림팀 기사를 관심있게 읽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행동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어 그들의 도전이 정말 값지다고 여겼습니다. 앞으로 저도 조그마한 일이라도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장희지 · 대구 북구

<사랑의열매>를 읽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나눔을 펼치시는 분들을 보며 '진짜 천사'라고 느낍니다. 그들을 통해 진정한 동행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저도 봉사의 길을 찾아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배기성 · 경기 부천시

사랑의열매에 입사한 지 1년 된 새내기 신입사원이 기부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애써온 이야기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눔문화를 알리는 데 힘써주기 때문에 올겨울에도 곳곳에 따뜻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조석 · 경기 의정부시



## 참여방법

- \* 이메일(E-mail: cckpr@chest.or.kr)로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를 읽은 후 소감이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 \* 나눔에 대한 재미있고, 감동적인 경험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를 가족, 친구 등에게 선물한 인증 사진을 보내주세요.
- \* <사랑의열매> 기사 및 편집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 \* 보내실 때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 독자 참여 사은품

독자의견(3명)에 선정된 분에게는 내용 소개와 함께 문화상품권(2만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사랑의열매 단행본 세트    우산    열매 배지, 열매밴드    USB



## <사랑의열매>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매거진은 '사랑의열매' PC·모바일 페이지에서 e-book(전자책)과 PDF 파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하단의 '홍보자료' 배너를 클릭하면 해당 서비스 화면이 나옵니다.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www.chest.or.kr](http://www.ches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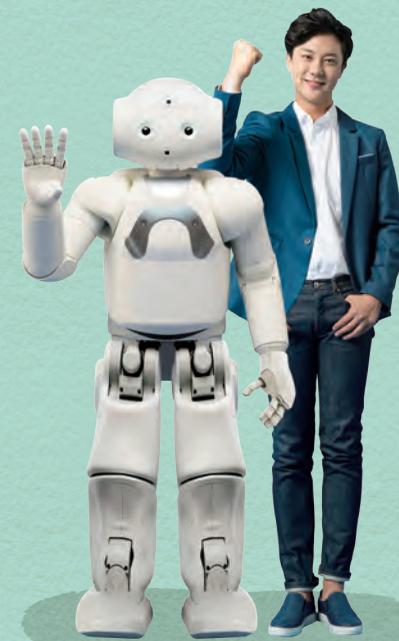


#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나눔은 나눔의 새로운 길입니다. 사랑의열매가 시작했습니다.

가난으로 꿈을 잃어버린 아이들과 청년들이 스스로 굴레를 끊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방법을 지원합니다.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꿈을 이루는 기회를 줍니다.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는 14~24세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진로지원을 돕는 '희망플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부상담 080-890-1212 | ARS 기부 060-700-1212

KB 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언제나 지켜봐 주시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더 큰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